

통영 강구안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추진 협의회 실시



▲ 협의회 전경



▲ 통영 강구안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9월 17일 통영시청에서 시청관계자 및 지역 상인회, 관계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통영 강구안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통영항 내만(강구안)의 수질악화 원인이 되는 침적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항내 환경을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 일자 결정, 강구

안 내 선박철수 및 사전 홍보사항, 간이 접안시설 이동 및 작업계획, 활어 양육 시설 임시폐쇄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서해특정해역 주변어장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완료 폐어망·어구 등 133톤 수거·처리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8월 8일 착수한 서해특정해역 주변어장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지난 9월 22일 준공했다.

총 사업비 5억2천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특정해역 주변어장 약 25,100ha의 면적에

서 폐어망·어구 등 133톤을 수거·처리하였다.

이번 사업은 주변어장의 어족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수년간 침적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프로그가 추천하는 수산물 요리 100선' 책자 제작



와이프로그 미니맘의 새우샐러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온라인상 주부 여론 주도층인 유명 와이프로거(wifelogger)를 섭외하여 수산물 요리를 추천받아 요리책을 제작한다.

온라인상에서 수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와 씨푸드 전성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주부들의 추천을 통한 수산물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책자 제작은 10인의 와이프로거가 추천하는 수산물 요리법, 수산물요리 노하우, 생활속 요리이야기 등을 제공받아 10월중에 책자로 제작하여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되며 'KOREA FOOD EXPO 2008' 수산홍보관에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 와이프로거(wifelogger)란?

'와이프(Wife)'와 '블로거(Blogger)'를 합친 '와이프로그(Wifelogger)'는 블로그에 살림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주부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한국어촌어항협회 학생정보제공자 모집

- 어촌지역의 여행정보 · 수산물먹거리 정보제공을 위해 -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바다여행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보제공자(Content Provider)를 모집하였다.

9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3개월간

‘바다여행’ 정보제공자로 활동하게 될 이번 학생정보제공자는 월 4회이상 콘텐츠를 등록하고 ‘바다여행’ 대내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학생정보제공자를 모집, 활용함에 따라 어업인, 수산분야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운영되었던 정보제공자가 어촌, 바다관광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질 높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활성화가 기대된다.

2008년도 신지식 어업인 선발

9.10~10.9일까지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전국 수산사무소에서 접수가능

농 립수산물식품부는 전국적인 공모를 거쳐 2008년도 신지식 어업인을 10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다.

금년도 신지식어업인 신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의 수산관리과 및 29개 수산사무소에서 접수하며, 1차 심사와 농식품부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습능력(정보 습득성),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창의적 적용능력 정도(창조적 혁신성),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성취능력(방법의 혁신성), 사회적 으로나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치창출성) 등 총 5개분야로 나누어 전문심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8년도 신지식 어업인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금년 11월에 신지식 어업인 인증서와 함께 우수자에 대하여는 신지식 어업인 대회 개최시 장관 표창과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신지식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신지식인들의 정보를 어업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성공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신지식 어업인이 수산업과 지역어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안산시 대부권역 어촌 종합개발사업 착수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9월 26일 안산시의 대부권역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사업을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의 대부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대상 어촌계는 구봉어촌계 등 총 9개이며 어촌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소득기반 시설, 어업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편익·복지·문화시설 등이 갖추어 지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과업기간은 내년 5월 25일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으로 서해안권역의 종합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전시관 세워진다

- 해양생물·식물과, 홍보물·홍보영상 등 8,000점 전시예정 -

충 남도는 9월 8일(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김동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충남발전연구원, 전시전문가, 사진기자,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전시자료 수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유류유출사고 후 소멸, 유실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곤충·식물 등 표본자료, 동물·패류 등 박제, 항공사진, 홍보영상 등 총 8,000점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용역을 맡아 최초 피해발생시 부터 복원까지 전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시관 전시대상 자

료가 최종 확정된다.

충남도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사상최악의 환경재난으로 태안 앞바다 및 서남해안 일대 양식장, 해수욕장, 도서지역 등을 오염시킨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앞으로 해양오염 사고의 산 교육장 및 연구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알림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0월 13일~19일까지 양재동 aT센타, 시민의숲에서 열리는 KOREA FOOD EXPO 2008에서 수산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